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대학생 에너지 캐러밴'

에너지의 모든 것 보여 드려요

본보 22일 조선대서…강연·견학 등 행사

광주·전남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 광주·전남의 에너지 정책 현황,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대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일보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22일 오전 9시 조선대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대학생 에너지 캐러밴'을 진행한다. 행사는 최근 정부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 발표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과 관련, 청년 층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원자력은 석유나 수력, 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원가가 월등히 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저하게 낮지만 안전성이나 수용성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의 35.5%를 원자력이 맡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 울진 등 4개 지역에서 20기가 운영 중이며, 세계 6위 규모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에너지 정책을 20년간 기획해 온 류용빈 광주시 과학산업과장이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와 광주·전남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류 과장은 광주·전남의 자연 환경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기에 알맞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서게 될 정운관 조선대 공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정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43.6%에 달하는 석유의 비중은 2030년 33%까지 낮아지고, 원자력은 현재 15.9%에서 27.8%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2.5%에서 10.7%로 비중이 커진다.

원자력의 경우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 등의 장점으로 현재 26%인 설비 비중이 2030년까지 41%로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부지 확보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하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은 각 회사의 에너지 관련 사업과 연구 현황을 설명하고 취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도 풀어

줄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후에는 영광의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로 이동, 한수원에 대한 기관 소개를 들은 뒤 발전소 견학에 나서게 된다.

이경진 조선대 공대 부학장은 "정부가 장기 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에너지 정책에 10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현실"이라며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문의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및 전화(062-2200-514). /정상필기자 camus@

박 시장 잇단 외부 특강 '바쁘다 바빠'

매달 한 두차례 강연…현장점검도 강화

박광태 광주시장이 민선 4기 후반기들어 지역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의 초청으로 매달 한 두차례씩 특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대형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대회 및 행사 유치나 투자유치, 시장개척 등 해외 활동에 주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행보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전남대 법대 강당에서 12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주제로 한 시간여동안 특강한다. 전남대측은 "이번 특강은 '한국행정론' 담당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박 시장을 '일일강사'로 특별 초청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조선대 대학원에서 경상대학 학생 5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역시 대학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1등 광주 건설의 도전과 희망'을 주제로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

박 시장은 지난 9월 23일에는 전남대 동문 모임, 8월 8일에는 전남대병원 초청으로 각각 특강을 갖는 등 지역사회 및 시민·학생들과 접촉면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박 시장은 특강을 통해 '1등 광주 건설'과 '저탄소 시범 도시 조성'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시정 주요 시책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1등 광주'와 '경제살리기' 전도사로 직접 나선 것일뿐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 등으로부터 초청이 있을 경우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시간을 쪼개 강연에 나서고 있다"면서 "내용도 특별한 주제를 정하기 보다 1등 광주건설을 위한 희망이나 지자체의 현실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매달 두 세차례 주요 건설사업장을 방문,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영상복합문화관 건립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대 '의생명과학센터'

화순전남대병원서 기공

장기적으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이전하게 될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가 건립 추진 3년만에 기공식을 가졌다.

전남대는 오는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화순전남대병원 부지 내에 연면적 3만3천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의생명과학융합센터(이하 센터) 기공식을 17일 가졌다.

센터에는 의생명과학 분야와 생리, 약리, 미생물 등 분야별 실험실과 교수연구실 등이 들어서며, 의대 강의실과 도서관, 실험동물 사육실, 수술실, 검역실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정상필·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전남대 치과병원 진료 시작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원장 박상원)이 1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농생대 연습림 부지에 완공된 신축건물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치과병원은 지방에선 최대 규모인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지어졌으며,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입주하고 정비가 완료되는 내년 2월께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경제살리기 종교계도 나섰다

5개 종교 40여명 협의회 구성

광주시가 '지역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 마련에 나선데 이어 지역 종교계도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지역 5개 종교 지도자 40여명은 17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호텔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이준보 광주고검장,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경제살리기 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종교단체 대표들은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협력하고 ▲종교간 종파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며 ▲범시민적 경제살리기협의체 구성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에 참여와 협조를 제의키로 결의했다.

또 협의회 설립 준비를 위해 방철호 목사(기독교), 무이스님(불교), 정상윤 전교(유교), 김정유 교무(원불교), 조

비오 몬시뇰 신부(천주교) 등을 각 종교 대표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3일 각계 대표 32명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역 창업투자회사 설립과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진흥자금 융자 등의 조기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